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6, No.6 (August 2006) pp.72-86

조선시대 외국어학습서를 중심으로 본 복식명칭 연구

김 은 정*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시간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A Study on Clothing Terms in the foreign language study books of the Joseon Period

Eun-Jung Kim* · Soon-Che Ka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6. 3. 23 투고)

ABSTRACT

The study aimed to materialize the meaning of the names through analyzing names that have synonyms and ambiguous word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seven foreign language study books such as ≪譯語類解 Yeokeoyuhae≫,≪譯語類解補編 Yeokeoyuhae - supplementary book≫,≪同文類解 Dongmunyuhae≫,≪蒙語類解 Mongeoyuhae≫,≪蒙語類解補編 Mongeoyuhae- supplementary book≫,≪倭語類解 Oaeeoyuhae≫ and ≪方言類釋 Bangeonyuseok≫. The study selected vocabularies related with headgear, socks, clothing from those vocabulary boo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sult focusing on the same Chinese terms in multiple forms has shown that '帽子(Moja), 斗蓬(Dubong), 頭面(Dumyen), 襪(Mal), 木屐(Mokgeuk), 暖襪子(Nanmalja), 襖子(Oja), 小襖子(Sooja), 蓑衣(Saui), 團領(Danlyeng), 褂子(Goija), 齊肩褂(Jegyengae), 衫兒(Sama), 單褲(Dango)' have differences in Korean annotations, and it has been found that these differences are spelt as synonyms in general.
2. The result focusing on the same Korean terms in multiple forms has shown that Gamto, Gat, Satgat, Bolkki, Gatmo, Neoneol, Gatdongot, Ddambatgijeoksam, Nuyeok, Tyeollik, Goui, Baji, Gatdongot, Hatot, Dongdoljji, Yusam, Chima and etc. have 2 or more Chinese spellings. Among these, Neoneol, Ddambatgijeoksam, Nuyeok, Tyeollik, and etc. seem to have used similar Chinese spellings, and Gat, Dongdoljji, and etc. seem to have used Chinese spellings according to the multiple forms in each country.
3. There have also been records of terms seldom used at present such as Dalogi, Neoneol, and etc., and it has been found that Mahulae, Doljji, Dunja, and etc. are the terms have been geographically influenced by the northern race as they have been left as a dialect in North Korea currently.
4. Mahulae, Kulimae, Neolku, and etc. may be inferred as they have originated from Manchu language through pronunciation of each country spelt in translated books.

Key words: Yeokeoyuhae(譯語類解), Dongmunyuhae(同文類解), Mongeoyuhae(蒙語類解), Oaeeoyuhae(倭語類解), Bangeonyuseok(方言類釋), clothing terms(복식명칭)

Corresponding Author: Eun-Jung Kim, E-mail: kejsally@chol.com

Ⅰ. 서론

복식명칭은 복식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에는 문집, 사료, 어휘집 등이 부분적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이 중 본 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하는 어휘집은 한자에 대한 새김이 되어 있는 것, 당시 주변국가의 어휘를 한자로 기록하고 이를 언해한 것, 어휘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것 등 다양한 양식으로 발간된 것으로서, 특히 외국어학습서 중 유해류 역학서로 분류되는≪譯語類解(1690)≫,≪譯語類解補編(1775)≫,≪同文類解(1748)≫,≪蒙語類解(1790)≫,≪蒙語類解補編(1790)≫,≪倭語類解(1781~1782로 추정)≫,≪方言類釋(1778)≫[1]이다. 이들 어휘집은 한어·만주어·몽고어·일본어의 역학서로서 17세기말부터 18세기말에 간행되었으며, 한자로 기록된 복식명칭(한자표제어)을 문항별로 배열하고 각 나라의 발음과 뜻을 한글로 적은 類別辭書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외국어학습서들을 대상으로 쓰개, 족의[7], 의복에 관련된 명칭들을 발췌하여 한자표제어와 이를 언해한 한글명칭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同義 관계의 명칭들과 多義 관계의 명칭들을 확인하여 하나의 복식명칭이 갖는 의미의 범위를 확인하고, 외국어 학습서에 기록된 각 나라의 발음을 통해 조선시대 복식명칭의 유래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복식명칭에 대한 시대에 맞는 보다 명확한 해석은 물론, 명칭의 원류와 17-18세기의 우리나라의 복식뿐만 아니라 한자권 주변 국가의 복식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문헌해석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외국어학습서에 기록된 복식명칭 비교

외국어학습서는 실제 각 나라에서 사용된 어휘를 기록한 것으로, 服飾관련 어휘는 쓰개, 족의, 의복, 수식명칭, 織造·布帛에 직물명칭, 梳洗에 머리 모양과 관련된 명칭들로 구분되며, 각각의 서지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쓰개, 족의, 의복에 관련된 명칭들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외국어학습서의 서지적 특징 비교

서명	저자	발행 연도	類別	어휘의 수	복식 관련 어휘의 수	비고
譯語類解[2]	신이행 외/사역원	1690년	62부류	4,690	248	표제어인 한어와 그 正·俗音이 좌우 양편에 한글로 적혀 있으며, 권점 아래에 한국어 대역어가 달려 있다.
譯語類解補	김홍철	1775년		2,298	92	
同文類解[3]	玄文恒	1748년	55부류	4,797	166	표제어인 漢語와 그 밑에 한국어 대역이 적혀 있으며 권점 아래에 해당 만주어를 한글로 적어 놓았다.
蒙語類解[4]	방효언	1790년	54부류	3,842	122	표제어인 漢語와 그 밑에 한국어 대역이 적혀 있으며 권점 아래에 해당 몽골어를 한글로 적어 놓았다.
蒙語類解補	방효언	1790년	48부류	1,475	24	
倭語類解[5]	미상	1781~1782년으로 추정	53부류	3,234	126	표제어인 1음절의 漢字 또는 2음절 이상의 한자어를 제시하고 그 오른쪽에 한글로 국어의 音 또는 音과 뜻, 왼쪽에 일본의 한자음을 표시하였고 그 아래에 권점을 친 다음 해당 일본어를 역시 한글로 풀이하고 있다.
方言類釋[6]	洪命福	1778년	87부류	5,006	214	한어를 표제어로 하여 그 아래에 협주 형식으로 한국어 대역이 적혀 있으며, 이어서 한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를 각각 한글로 풀이해 놓았다.

1. 쓰개와 관련된 명칭

쓰개와 관련된 명칭들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이들은 크게 '冠, 帽, 笠, 巾' 등으로 분류되는데, 冠에는 梁冠, 珠冠, 花冠, 帽에는 紗帽, 帽子, 大帽子, 小帽子, 氈帽子, 氈帽, 凉帽子, 凉帽, 油帽, 草帽子, 椶帽子, 頂帽子, 狐帽, 煖帽, 笠에는 蓑笠, 巾에는 頭巾이 있다. 이 중 '○帽' 혹은 '○○帽子'로 표기되는 한자 명칭은 다른 쓰개류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이들을 분석해 보면 大帽子, 小帽子, 頂帽子와 같이 형태를 나타내는 명칭, 凉帽子, 凉帽, 煖帽와 같이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과, 紗帽, 氈帽子, 氈帽, 油帽, 草帽子, 椶帽子, 狐帽 등과 같이 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이 있다. 특히 紗帽라는 한자표제어는 모든 외국어학습서에 기록되어 있어 이는 당시 한자권 주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쓰개였음을 알 수 있다.

帽나 帽子와 관련된 표제어들 중에는 '갓' 또는 '감토'로 언해된 것이 있는데 특히 '감토'로 언해된 '氈帽'는 조선시대 여인의 쓰개인 '전모'의 寫音字이기도 하므로[8] 한자 표기가 동일하더라도 형태, 용도, 재료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자 표제어 '油帽, 雨籠, 油窩'에 대한 우리말 풀이는 모두 갓모[갈모]인데, 갓모는 기름을 먹인 재료를 이용하여 비 오는 날에 갓 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자 표제어를 통하여 그 재료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또 '斗蓬'의 우리말 풀이인 널쿠는≪譯≫에는 '삿갓', ≪同≫에는 '斗蓬'의 만주어 발음이 '너러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널쿠는 만주어에서 유래된 우리식 표기이고 우리말로는 삿갓임을 알 수 있다.

2. 족의에 관련된 명칭

족의류에 관한 명칭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으며, 이들은 '襪, 靴, 鞋, 屐' 등으로 분류된다. 襪에는 방한용임을 알 수 있는 暖襪子와 재료를 나타내는 皮襪, 氈襪, 毛占 襪子, 皮襪頭가 있다. 특히 재료를 나타내는 '皮, 氈, 毡' 등의 수식어들은 가죽이나 모직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襪'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布帛류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襪(子)은≪譯≫에는 '청'으로, ≪方≫에는 '보션[버선]' 또는 '청'으로 언해되었으며, 이외에는 모두 '보션[버선]'으로 언해되고 있어 대체로 '보션[버선]'이 우리말풀이였음을 알 수 있다. 襪에 해당하는 명칭 중에 '暖襪子, 皮襪頭'의 언해인 너널은 한자표제어로 미루어 보면 가죽으로 된 방한용의 버선으로 짐작 된다. 이외 '둘오기[ᄃᆞ로기]'라 언해되는 '兀剌' 이 있는데, ≪北塞記略≫에서 보면 가죽으로 종아리를 감싸는 형태의 버선을 우리나라에서 多路岐[9] 즉 다로기라 한다하여 가죽으로 만든 襪인 것으로 생각된다.

靴는 목이 긴 신을 지칭하며 우리말 풀이로는 공통적으로 '훠'라고 하는데, 재료를 나타내는 皮靴, 釘靴, 색상을 나타내는 皂靴가 있었고,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에는 조복에 신는 朝靴와 마른 땅에 신는 旱靴가 있고, 진땅에 신는 油靴, 蠟靴가 있다. 또 '슈여ᄌᆞ'로 언해되는 尖靴, 快靴子가 있는데 이는 현재 중국복식사에서 보면 淸代 文武官 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신었던 靴의 하나로 봄·여름에는 緞으로 제작하였고, 겨울에는 絨을 이용하여 만든 신이며, 특히 快靴子는 신목이 낮은 신이었다고 한다.[10] 이외 '둘오기훠'로 언해되는 兀剌靴가 있는데, 이는 앞서 '둘오기[ᄃᆞ로기]'가 가죽으로 제작된 종아리를 감싸는 형태의 버선인 것으로 보면 이와 재료 및 형태에서 유사한 '신'일 것으로 생각된다.

鞋는 신목이 낮은 형태로 우리말 풀이로는 공통적으로 '신'이라고 하는데, 재료를 나타내는 草鞋, 綉鞋, 麻鞋, 蔴鞋와 용도를 나타내는 壇鞋, 禮鞋로 구분된다. 屐은 나무신으로 木屐, 脚濾이 있었는데 표기만 다른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족의에 관한 명칭들의 언해를 중심으로 보면 '襪, 靴, 鞋'와 관련된 명칭들이 '보션, 훠, 신'으로 언해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들이 족의류를 대표하는 우리말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외국어학습서의 쓰개 관련 명칭

	≪譯≫ (1690)	≪譯補≫ (1775)	≪同≫ (1748)	≪蒙≫ (1790)	≪蒙補≫ (1790)	≪倭≫ (1781~2?)	≪方≫ (1778)
冠			-	-		관	
梁冠	--						
珠冠	女冠						
花冠	上同						
帽子			감토	갓		모ᄌᆞ	갓
紗帽	--		--	--		사모	사모
紗帽翅兒	사모ᄲᅳᆯ						
紗帽翅							사모ᄲᅳᆯ
剛叉帽	*뒤타ᄃᆞᆯ마기 온갓*						
大帽子	갓						
小帽子	감토						
氈帽子	털갓						
氈帽							감토
凉帽子		녀름ㅅ깃	갓				
凉帽							녀름모ᄌᆞ
草帽子	초갓		초갓	초갓			
草帽							초갓
椶帽子	종갓						
頂帽子				감토			
帽纓子			마흐래상모	마흐래상모			
煖帽						난모	겨울모ᄌᆞ
帽套	紗帽이엄						
狐帽	上同○一云눈帽ᄯᅩ						
帽頂兒	갓ᄃᆡ우						帽頂갓ᄃᆡ우
油帽		갓모					갓모
雨籠	갓모						
油罩	上소						
凉圈子	*ᄃᆡ우업슨갓*						
笠						갇립	
蓑笠	삿갓						
斗蓬	삿갓		널쿠	널쿠			널쿠
幞頭	--						
頭面	곳갈○首飾一件謂之--						슈식
頭巾	--					두건	두건
首帕	*마리덥ᄂᆞᆫ 슈건*		마리슈건	마리슈건			*마리덥ᄂᆞᆫ 슈건*
包頭	*머리ᄡᅡᄆᆞᄂᆞᆫ 것*						
圍孛頁子		揮項					
苫肩	耳掩						
披肩	上소						피견
臉罩		面紗	--	--			면사
遮臉皮		볼ᄊᆡ	볼ᄊᆡ				
皮馬虎					볼ᄊᆡ		
圍頦							볼ᄊᆡ

〈표 3〉 외국어학습서의 족의 관련 명칭

	≪譯≫ (1690)	≪譯補≫ (1775)	≪同≫ (1748)	≪蒙≫ (1790)	≪蒙補≫ (1790)	≪倭≫ (1781~2?)	≪方≫ (1778)
襪						보션말	
襪子	청		보션	보션			보션
衲襪子	누비청						
皮襪	가족청						가족청
氈襪	시욹청						담청
毡襪子			담보션				
暖襪子		가족청	너널				
皮襪頭					너널		
革允子	通稱훠						
靴子			훠	훠		훠ᄌᆞ	훠
皮靴		갓훠	갓훠	갓훠			
朝靴	*朝服에 신ᄂᆞᆫ훠*						*됴복에신ᄂᆞᆫ훠*
皂靴	거믄훠				검은훠		
旱靴	ᄆᆞᄅᆞᆫ훠						ᄆᆞᄅᆞᆫ훠
油靴	멀온훠						졀온훠
蠟靴	즌훠						
釘靴	딩박근훠						
尖靴							슈여ᄌᆞ
快靴子	슈여ᄌᆞ						
兀剌靴	돌오기훠						
鞋子	通稱신		신	신			신
鞋						신혜	
草鞋						초혜	
綉鞋		슈신	슈신	슈신			슈신
墳鞋	*殿內에 신ᄂᆞᆫ신*						
禮鞋	上ᄉᆞᆫ						
撒鞋	ᄲᅳ을신						
韃 鞋	운혀						
麻鞋		삼신					삼신
蔬鞋			메토리				
屐						격지극	
木屐	격지		나모신		격지		격지
脚澁	上ᄉᆞᆫ						
兀剌	돌오기		ᄃᆞ로기	ᄃᆞ로기			돌오기
腿套		힝젼					힝젼
行纏						힝젼	
裹脚	발ᄡᅡ개						발ᄡᅡ게

3. 의복에 관련된 명칭

의복류에 관한 명칭들을 외의류, 상의류, 하의류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외의류에 해당되는 명칭들에는 트임이 있는 옷인 開岐袍, 氅衣, 깃이 둥근 형태인 團領, 圓領과 이외 袍子, 袍衫, 道袍, 搭護, 帖裡, 禾方耒 褶 등이 있었다. 이중 團領은 모든 외국어학습서에 기록되어 있어 당시 한자권 주변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의복명칭임을 알 수 있다.

상의류에는 褂, 襖, 衫이 있는데, 褂에는 용도를 나타내는 馬褂子, 형태를 나타내는 齊肩褂, 短皮褂,

재료를 나타내는 皮褂, 毡褂子가 있다. 襖는 상의 중에서도 솜을 둔 옷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襖子, 綿襖子, 綿襖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 한자표기였다. 또한 襖는 형태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小襖子, 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皮襖子, 光皮襖이 있으며, 제작방법을 나타내는 胖襖子, 腁襖, 衲襖가 있다. 衫은 '적삼' 혹은 '홋옷'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衫兒, 汗衫, 單衫으로도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의류에는 褲, 褌, 袴, 裙, 裳이 있는데, 褲, 褌, 袴는 고의 또는 바지로 언해되었는데, 표제어의 우리말풀이를 중심으로 용도에서 보면 속옷에는 褌, 單褲, 單袴, 겉옷에는 袴, 綿袴兒, 褲子, 綿褲가 있고, 제작방법으로 보면 衲袴兒, 甲袴, 형태로 보면 窮袴가 있다. 裙과 裳은 치마로 언해되었는데, 裙은 ≪方≫에 '계집의 치마'로, 裳은≪譯≫에 '조복에 입는 치마'라 하여 한자학습서에서와 동일하게 성별에 따라 구분을 두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어학습서에서는 裙과 관련된 명칭들이 보이는데, 男裙은 '사마치[11]', 圍裙은 '휘건'과 '몰탈제두르는치마'로 언해되어 있어 말을 탈 때 입는 치마의 용도를 나타내었고, 長裙은 '긴치마'로 언해되면서 치마의 형태를 나타내는 명칭이었다. 특히 男裙은 裙이 여자의 치마를 지칭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특별히 '男'을 붙여 명칭을 표기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외의, 상의, 하의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재료를 나타내는 裘와 貂裘, 형태를 나타내는 開襟衣裳, 對襟衣裳 등이 있다.

또 '雨衣, 油衫'의 우리말 풀이인 유삼은 한자표제어를 통해 비 오는 날에 입는 옷으로 기름을 먹인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 언해를 중심으로 보면 한글 명칭 중에는 외국어 학습서에 기록된 각 나라의 발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둔즈는 ≪譯≫에서 보면 頓子의 한어 발음인 '둔즈'를 그대로 표기한 한글명칭이었고, 쿠리매는 ≪同≫에서 보면 褂子의 만주어 발음인 'ᵒ쿠루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더그레는≪譯≫에서보면 搭護의 우리말 풀이인데 ≪蒙補≫에는 齊肩褂의 몽고어 발음인 '더거레'가 있어 이를 차용한 한글명칭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외국어학습서는 공통적으로 한어 표제어와 우리말 대역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말 대역어 사이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우리말 대역어가 고유어로 대역된 것, 표제어와 동일한 한자음으로 대역한 것, 표제어와 다른 한자로 대역한 것, 뜻으로 풀이한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12] 고유어로 대역된 것에는 쓰개류에서는 大帽子와 凉帽子(갓), 족의류에서는 襪(보션), 鞋(신), 의복류에서는 小襖子(저구리옷)가 있었으며, 이들의 대역어인 '갓, 보션, 신, 저구리옷'은 각 부류에서 복식명칭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제어와 동일한 한자어로 대역한 것은 우리말 대역어의 위치에 한자어의 음절 수효에 해당하는 선(｜)으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梁冠(량권), 紗帽(사맏), 冠(권), 幞頭(부루), 頭巾(투긴), 團領(퇀링), 朝服(챺뿌), 道袍(됴퐌), 氅衣(챵이), 單衫(단산)[13] 등은 그 당시 중국의 漢字音으로 읽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제어를 당시 우리의 漢字音으로 읽은 것으로는 靴子(훠즈), 草鞋(초혜)등이 있었다. 이상의 명칭들을 보면 표제어의 한어 또는 한자어가 그대로 당시의 일반대중들에게 이해될 수 있었던 단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제어와 다른 한자어로 대역한 것으로는 圍脖子(揮項), 苫肩(耳掩)이 있었다. 이처럼 한글이 아닌 漢字語를 사용하여 풀이한 명칭들은 표제어의 漢語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었기에 당시에 사용되던 다른 한자어로 풀이를 했던 것이다. 뜻으로 풀이한 것은 首帕(마리덥는슈건), 馬褂子(마상에닙는쟈른웃옷), 圍裙(몰탈제두르는치마) 등으로서, 이는 표제어인 한어에 해당하는 적절한 한글 명칭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처럼 외국어학습서의 문헌에 뜻풀이로 대역된 것은 그 당시 어느 정도 부가 설명을 필요로 했던 생경한 명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하나의 표제어가 모든 어휘집에서 동일하게 언해된 경우와 어휘집에 따라 다르게 언해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어휘집에 동일하게 언해된 경우는 紗帽(사모), 鞋子(신) 등으로 이들은 단독의 우리말 명칭만이 있는 경우이다. 반면 어휘집마다 다르게 언해된 명칭들에는 帽子(감토, 갓,

〈표 4〉 외국어학습서의 의복 관련 명칭

	≪譯≫ (1690)	≪譯補≫ (1775)	≪同≫ (1748)	≪蒙≫ (1790)	≪蒙補≫ (1790)	≪倭≫ (1781~2?)	≪方≫ (1778)
朝服	--		--	--			
朝衣							죠복
團領	--		관딕	관딕		단령	관딕
圓領	上同						
袍子		웃옷	웃옷	웃옷			웃옷
袍						도포포	
道袍	--						
開岐袍		뒤틋기					뒤틋기옷
蟒龍袍	蟒龍옷						
搭護	더그레						더그레
帖裡	텰릭						텰릭
襏襫	上同						
表衣						표의	
氅衣	--					창의	
褂子		긴져구리	쿠리매	쿠리매			쟈근웃옷
馬褂子							*마상에닙는쟈른웃옷*
皮褂		갓옷					
齊肩褂		등지계	등지게		갓동옷[14]		등지게
毡褂子			담유삼옷	담유삼옷			
短皮褂			갓동옷				
襖					동옷	핟옫오	
襖子	핫옷		돌찌	돌찌			동돌지
綿襖子			핫옷	핫옷			
綿襖	핫옷						
肭襖							*두터온핫옷*
胖襖子	*두터온핫옷*						
小襖子	저구리옷		동돌찌				
皮襖子			갓옷	갓옷			
皮襖	갓옷						갓옷
光皮襖	*털업슨갓옷*						
衲襖	누비옷						누비옷
頓子	둔즈						
皮袘			둔즈	둔즈			
衫						젹삼삼	
汗衫	*솜밧기젹삼*					한삼	
汗塌兒		솜밧기					
衫兒	*솜밧기젹삼*		젹삼	젹삼			
衫子							속홋옷
單衫	--		홋옷				

單衣						단의	홋옷
袍衫		큰옷通稱					
氈衫	담옷						
挾衣			겹옷				겹옷
背心		비ᄌᆞ					비ᄌᆞ
雨衣		유삼	유삼	유삼			유삼
雨裝						우장	
油衫	유삼					유삼	
蓑衣	누역		누역	누역		사의	누역
襪襖	上ᄉᆞᆫ누역						
袴						바지과	
袴兒	고의						
單袴	홋고의						
衲袴兒	누비바디						
甲袴	겹바디						
綿袴兒	핫바디						
窮袴		*밋막은바지*					
褌						고의곤	
單褲			고의	고의			홋바지
綿褲			바지	바지			소옴바지
褲子							바지
裳	*朝服엣치마*					치마샹	
裙子			치마	치마			*계집의 치마*
裙兒	치마						
長裙	긴치마						
男裙					사마치		
圍裙		휘건					*몰탈제두르는 치마*
疊衣						텹의	
襯衣	*솔헤다혀닙는옷*						*솔에다여닙는옷*
底衣		속옷					
開襟衣裳	뒤ᄐᆞ기옷						
對襟衣裳	섭업슨옷						
比甲	비게옷						
直身	直領옷						
衣撒	이삭옷						
貂裘	돈피옷						
裘						갇온구	

모즈), 斗蓬(삿갓, 널쿠), 襪子(청, 보션), 木屐(격지, 나모신), 袍子(웃옷, 도포), 團領(관딕, 단령), 蓑衣(누역, 사의) 등으로, 하나의 표제어에 대한 우리말 풀이들 간에는 동의어 관계에 있게 된다.

이외에도 외국어학습서에서는 각 나라의 발음표기를 통해 둔즈와 마흐래·널쿠·쿠리매가 각각 한어와 만주어에서 차용된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날 사용례가 적은 우리말 명칭인 너널, 다로기, 사마치 등의 명칭들도 확인할 수 있다.

Ⅲ. 복식명칭의 비교고찰

본 장에서는 3장의 분석을 토대로 어휘집마다 다른 쓰개, 족의, 의복에 관한 복식명칭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한자 명칭(표제어)이 두 가지 이상의 한글 명칭으로 언해되어 있는 경우와 한글 명칭(언해된 명칭)이 두 가지 이상의 한자 표제어를 갖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 한다.

1. 하나의 표제어에 다양한 언해명칭이 있는 복식

한자 명칭(표제어)을 중심으로 하나의 표제어에 다양한 언해명칭이 있는 복식을 분석해 보면 명칭들 사이의 동의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쓰개

쓰개에서는 '帽子, 凉帽子, 頭面, 斗蓬'이 두 가지 이상의 한글 명칭으로 언해되었다.

'帽子'는 ≪同≫에서는 '감토', ≪蒙≫과 ≪方≫에서는 '갓', ≪倭≫에서는 '모자'로 언해되고 있다. 또 어휘분류사전인≪才物譜≫[15]에서는 '帽子'를 '감토'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해의 차이는 편찬자의 견해 차이일 수도 있으나 하나의 한자 명칭에도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한글명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6]

'凉帽子'는≪譯補≫에는 '녀름ㅅ깃[17]', ≪同≫에는 '갓'이라고 언해하고 있었고, 凉帽는 ≪方≫에 '녀름 모자'로 언해되어 있어 凉帽 또는 凉帽子는 여름에 사용된 쓰개였으며, 이와 함께 '갓'은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頭面'은 ≪譯≫에서는 '곳갈'로 언해되어 있으나 첨부된 해석을 보면 '首飾一件謂之--'이라 하였고,≪方≫에서는 '슈식'이라 한 것으로 보아 頭面은 머리를 덮는 것, 머리를 꾸미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斗蓬
(출처:≪中國服飾 5000년≫下)

'斗蓬'은 ≪譯≫에는 '삿갓'으로,≪同≫·≪蒙≫·≪方≫에서는 '널쿠'로 언해되었는데, '삿갓'은 대오리나 갈대로 거칠게 결어서 비나 볕을 가리는 갓[18]으로 현재까지도 그 의미가 통용되고 있으며, '널쿠'는 ≪漢淸文鑑≫[19]에 '널쿠 遮雨雲之衣'로 풀이되고 있어 삿갓과 용도면에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斗蓬은 〈그림 1〉의 청대 복식에서 보면 소매가 없어 어깨에 걸치는 형태의 비나 눈을 막았던 옷으로 '簑衣, 襞褳, 斗襞'이라고도 하며[20] 형태에 있어 삿갓과 서로 차이를 보인다. 또 '斗蓬'의 만주어 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을 보면,≪동≫에는 '너러우',≪漢淸文鑑≫에는 '너러쿠'라고 기록하고 있어 우리말 표기인 '널쿠'는 만주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생각된다.[21]

2) 족의

족의에서는 '襪(子), 暖襪子, (木)屐'이 두 가지

이상의 명칭으로 언해되었다.

'襪(子)'은 ≪譯≫에는 '청', 그 외 외국어학습서에서는 '보션'으로 해석된다. 특히≪譯≫에서 보면 '袜襪子'는 '누비청', '皮襪'은 '가족청', '氈襪'은 '시욹청'으로 襪과 관련된 한자의 언해가 모두 '청'으로 언해되었고, ≪方≫에서는 '襪'은 '보션', '皮襪'은 '가족청', '氈襪'은 '담청'이라 하여 '보션'과 '청'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상을 볼 때 '보션'과 '청'은 동의어임을 알 수 있으며, 襪(子)에 대한 언해 시 두 가지 한글명칭을 모두 사용해도 좋을 듯하다.

'暖襪子'는≪譯補≫에서는 '가족청',≪同≫에서는 '너널'로 해석되는데, '가족청'은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가죽으로 만든 버선이고, '너널'은 ≪토박이말쓰임사전≫에서 보면 우리말로 추울 때에 신는 커다란 솜버선[22]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통해 暖襪子는 한자풀이 그대로 방한용 버선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되는 우리말 명칭은 너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木屐'은 ≪譯≫·≪蒙補≫·≪方≫에서는 '격지', ≪同≫에는 '나모신'으로 해석되었으며, ≪漢淸文鑑≫[23]에는 '격지'로 언해하고 있다. 현재 격지는 나무신의 고어로 설명되는데, 아동용한자학습서에서 보면 '屐'으로 표기되면서 ≪訓蒙字會≫와 ≪新曾類合≫에서는 '격지', 19C 이후에 제작된 한자학습서에서는 '나무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7, 18세기에 해당되는 외국어학습서에서는 격지에서 나무신으로 변화되는 과도기로서 두 가지 명칭이 모두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복

의복에서는 '團領, 衫兒, 襖(子), 小襖子, 褂子, 齊肩褂, 裳, 褻衣'가 두 가지 이상의 명칭으로 언해되었다.

'團領'은 ≪譯≫과 ≪倭≫에는 한자음 그대로의 '단령'으로, 그 외 역학서에서는 합성어인 '관딕'로 언해되었다. '단령'은 깃이 둥근 형태의 袍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명칭인데 반해 '관딕'는 '관복'의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언해되고 있어 이를 통해 의복의 형태와 용도를 알 수 있다.

'衫兒'는 ≪譯≫에는 '뚬밧기젹삼', ≪同≫·≪蒙≫에는 '젹삼'으로 언해되었는데, ≪方≫에는 이와 유사어로 보이는 '衫子'가 '속홋옷'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홑옷'의 개념 안에서 동의어인데, 衫兒는 홑옷을 지칭하는 '衫'에 명사를 표현하는 중국식 표기법인 '兒'가 붙은 의복명칭[24]으로, '衫'과 동일한 것으로 외국어학습서를 통해 적삼 중에서도 가장 안에 입는 홑옷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襖子'는 ≪譯≫에는 '핫옷', ≪同≫과≪蒙≫에는 '돌찌', ≪蒙補≫에는 '동옷', ≪方≫에는 '동돌지'로 언해되었다. '핫옷'은 '솜을 둔 옷'을 지칭하고, '돌찌'는 현재 윗옷[25]의 북한어휘로 함경북도 길주·성진의 방언으로는 '속적삼(上內衣)[26]'을 지칭한다. '동옷'은 ≪漢淸文鑑≫[27] 에서도 '襖 동옷'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토박이말쓰임사전≫[28]에서 보면 남자가 입는 저고리로 핫것과 겹것이 있다고 하며 '동저고리'와 동의어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학습서에서 보면 '襖子'는 '상의'를 지칭하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용한자학습서에서 보면 襖가 1800년대 이후에 두루마기로 언해되고 있어 襖子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형태, 용도가 다른 포괄적인 한자 명칭인 것으로 생각된다.

'小襖子'는 ≪譯≫에는 '저구리옷', ≪同≫에는 '동돌찌'로 언해되었다. 저고리는 어휘분류사전인≪物名攷≫에 '腰褶'으로 표기되어 있어 허리정도 길이의 웃옷으로 해석되고 있어 '동돌찌' 또한 이와 같은 상의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생각된다. 또한 '襖子'와 비교한다면 '小襖子'는 '襖(子)'에 비해 의복의 길이가 짧은 상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褂子'는 ≪譯補≫에는 '긴져구리', ≪同≫과≪蒙≫에는 '쿠리매', ≪方≫에는 '쟈근웃옷'으로 해석되었다. '褂'類는 淸代부터 사용된 의복명칭으로 短外衣를 말하는데[29], 어휘집에 기록된 '褂子'는 '긴져구리, 쿠리매, 쟈근웃옷'으로 언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19세기 당시 상의류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리매'는 淸語 "쿠루머'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여진어 만주어의 '외투'를 지칭하는 차용어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함경북도 북부의 방언으로 남아 있다.[30] 그러나≪朴通事新釋

諺解≫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소매 있는 옷인 褂子가 '등거리'[31]로 언해되고 있어 〈그림 3〉과 같이 소매가 없는 의복을 지칭하는 '掛子'와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齊肩褂'는 ≪譯≫과 ≪同≫에는 '등지게', ≪蒙補≫에는 '齊肩褂'와 '齊短褂'가 갓동옷으로 언해되었다. 현재 '등지게[32]'는 '등거리'를 의미하는 평안도 방언이며[33], 갓동옷은 가죽으로 만든 상의로 이해된다. '齊肩褂'는 蒙語로는 '더거레'로 표기되는데, 이를 차용한 명칭이 조선시대 '더그레[34][35]'로 생각되며 이를 ≪譯≫에서 보면 搭護(搭護, 搭忽)[36]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명칭들을 정리하면 '齊肩褂·등지게·갓동옷·더그레·搭護'가 유사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조선어사전≫에서 보면 '더그레'가 '호의(号衣)'의 속칭[37]이라 하고 있어 〈그림 4〉의 '호의' 또한 같은 의복류임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소매가 없고 對襟 형태의 덧입는 옷으로 생각된다.

'裳'은 ≪譯≫에는 '朝服엣치마',≪倭≫에는 '치마'로 언해되었다. 아동용 한자학습서 중 ≪訓蒙字會≫의 註解를 보면 '裳'을 '男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裳은 치마 중에서도 특히 의례용으로 입는 남자의 치마를 지칭했었음을 알 수 있다.

'裹衣'는 ≪譯≫·≪同≫·≪蒙≫·≪方≫과 ≪漢淸文鑑≫[38]에는 '누역', ≪倭≫에는 '사의'로 해석되었다. 뉘역[누역]은 '도롱이[39]'의 옛말이고, 사의는 '裹衣'의 寫音子로 누역과 동일한 의미의 동의어로 역관에 따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의복에 관련된 명칭들을 보면 특히 ≪同≫과 ≪蒙≫등에서 현재 북한 방언인 돌찌, 쿠리매, 등지게 등이 발견되는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이 복식명칭에 있어 만주어나 몽고어에 영향을 받았고 남한과는 달리 의복의 변화가 적어 현대에까지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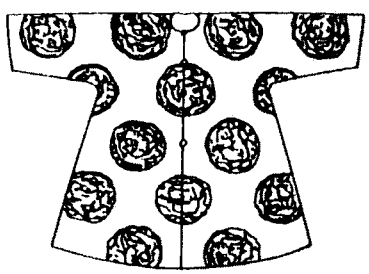
2. 한글 명칭에 다양한 한자 표기가 있는 복식

한글 명칭(언해명칭)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는 한자표제어들을 분석하면 동일하게 언해된 한글명칭에 대응하는 한자표제어들 간의 복식의 형태, 용도 등의 차이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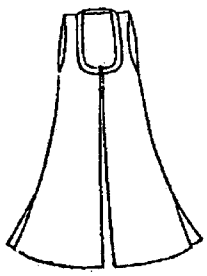
1) 쓰개

쓰개류에서는 '감토, 갓, 갓모, 볼씨'가 두개 이상의 한자 표기를 갖고 있다.

'감토'는 ≪譯≫에 '小帽子', ≪同≫에 '帽子', ≪蒙≫에 '頂帽子'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또한 ≪漢淸文鑑≫[40]에는 '毡帽'로, ≪蒙喩編(1810)≫[41]에 '氈帽감토小帽'라 하여 '氈帽'와 '小帽[42]'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小帽는 중국 명대(明代)의 일반 남자복식의 하나로서, 그 형태는 챙이 없이 모체가 六瓣, 八瓣, 圓錐形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절마다 소재를 달리하여 사용했으며 이는 청대까지 이어 사용되었던 것이다.[43] ≪國漢會語≫[44]에서는 감토를 '宕



〈그림 2〉 褂≪大淸會典圖≫
(출처: ≪大漢韓事典≫)



〈그림 3〉 紫的紗掛子 (출처:
≪進饌儀軌(純祖己丑)≫)

〈그림 4〉 號衣
(출처: ≪武藝圖譜通志
(1794)≫)

巾 cap'이라 하였고, ≪事類博解(1855)≫[45]에는 '小帽, 氈帽, 氈頭[46], 毡帽, 羊毛帽, 帽子, 감토'라고 기록되어 있어 '감토[감투]'로 풀이되는 다양한 한자 동의어를 발견할 수 있다. 또 감토의 표기는 ≪同≫에 기록된 '帽子'의 만주어 발음이 '캄투'로 기록되어 있어 만주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감토의 형태는 〈표 5〉에서 보면 조선시대는 도식자료와 유물을 통해 챙이 없는 쓰개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비교적 머리 형태에 맞는 형상으로 직물이나 펠트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元·明·淸代와 조선시대 감토 유물을 비교해 보면 명대와 청대의 감토와 조선시대 감토가 유사하다. 이상을 통해 감토는 각 나라별로 한자표기와 약간의 형태적 차이는 있지만 챙이 없고 직물이나 펠트를 사용하여 머리 모양에 맞게 제작한 쓰개라는 점이 공통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갓'은≪倭≫에는 '笠', ≪譯≫에는 '大帽子', ≪同≫에는 '凉帽子',≪蒙≫에는 '帽子'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갓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帽·笠·冠'의 우리말 풀이로서 곳갈, 감토를 포괄하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갓은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말총으로 만든 의관의 한 가지[47]'로서 구체적으로는 '흑립'을 대표해서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형태는 〈표 6〉과 같다. 또 외국어학습서에 갓으로 언해된 한자 표제어는 각 나라에 맞는 쓰개를 지칭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明·淸代, 일본의 에도시대의 문헌에서 그 형태를 보면 각기 차이가 있으나 챙이 있는 형태의 쓰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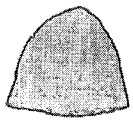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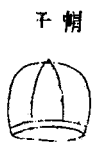
'갓모'는 ≪譯≫에는 '雨籠·油窄', ≪譯補≫·≪方≫에는 '油帽', ≪物名攷≫[48] 에는 '帽窄'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갓모는 쓰개를 의미하는 고유어 '갓'과 한자 帽의 합성어로 갓에 씌우는 쓰개이며, 위의 한자표기를 통해 기름을 먹인 재료로 만들어 비가 올 때 사용한 쓰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갓모는 현재 갈모로 표기되고 그 의미에도 변함이 없다.[49]

'볼씨[볼끼]'는 ≪譯≫·≪同≫에는 '遮臉皮', ≪蒙≫에는 '皮馬虎', ≪方≫에는 '圍孛頁' ',≪物名攷≫[50][51]에는 '腦包'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遮臉皮는 '얼굴을 가리는 가죽'으로, 腦包는 '볼을 싸는 것'으로 해석되고, '圍頡' 는≪譯補≫에는 '圍頡子'로 표기되면서 '揮項'으로 풀이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끼=圍頡(子)=揮項(휘항)'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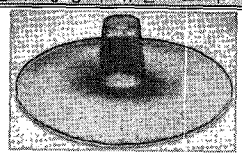
2) **족의**

족의에서는 '가족청, 너널'이 두개 이상의 한자 표기를 갖고 있다.

〈표 5〉 감토(氈頭, 毛占帽, 小帽子, 帽子)의 국가별 형태 비교

국가名	감토와 관련되는 유물·도식		
조선시대의 감토	 고운의 모직모(1479~1530) (출처:≪霞川高雲출토유물≫)	 이천기의 감투 (1610~1666) (출처:≪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氈頭 (출처:≪武藝圖譜通志(1794)≫)
중국의 감토	 元代의 小帽형 모자 (출처:≪モンゴル帝國≫)	 明代의 帽子 (출처:≪三才圖會(1607)≫)	 淸代의 小帽 (출처:≪中國古代服飾史≫)

〈표 6〉 갓(大帽子, 凉帽子, 笠)의 국가별 형태 비교

국가名	갓으로 인해되는 한자 명칭의 유물 도식		
조선시대의 갓	 흑립 (출처:≪朝鮮時代의 冠帽≫)		
중국과 일본의 갓	중국		일본
	大帽 (明代) (출처:≪三才圖會(1607)≫)	凉帽 (清代) (출처:≪中國衣經≫)	笠 (江戶代) (출처:≪倭漢三才圖會(1712)≫)

'가족청'은 ≪譯≫에는 '皮襪', 이를 증보한 ≪譯補≫에는 '暖襪子'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청'은 특히 버선목에 깃 장식이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장식적인 靴안에 신는 버선[52]으로 '가족청'은 특히 그 재료에 있어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방한용 버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너널'은 ≪同≫에 '暖襪子', ≪蒙補≫와 ≪漢淸文鑑≫[53]에는 '皮襪頭', ≪廣才物譜≫[54]에는 '千里襪'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너널은 방한용 버선으로 그 재료에 있어 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방한용으로 볼 때 길이가 길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의복

의복에서 보면 '둔즈[둔ᄌᆞ], 핫옷, 동돌찌, 갓동옷, 적삼, 솜밧기적삼, 유삼, 바지, 고의'가 두개 이상의 한자 표기를 갖고 있다.

'둔즈[둔ᄌᆞ]'는 ≪譯≫에는 '頓子', ≪同≫·≪蒙≫에는 '皮純' 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둔즈는 ≪역≫에서 보면 한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명칭[55][56]임을 알 수 있는데, 한글명칭이나 한자표제어를 통해서는 형태, 용도 등을 유추할 수 없었다. 그런데 둔자는 현재 함경남북도의 방언에서 보면 '두루마기[57]'를 의미하고 있어 '둔즈[둔ᄌᆞ]'는 외의류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핫옷'은≪同≫·≪蒙≫에서는 '綿襖子', ≪譯≫에서는 '襖子, 綿襖'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핫옷은 綿襖子의 표기로 보아 솜을 둔 옷임을 알 수 있다. '동돌지[동돌찌]'는 ≪方≫에는 '襖子', ≪同≫에는 '小襖子'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앞의 글에서 돌찌는 윗옷을 의미하는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동돌지는 위의 한자표기로 추측할 때 짧은 상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갓동옷'은 ≪蒙補≫에서 '齊肩(短)褂', ≪同≫에서는 '短皮褂'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앞서 갓동옷이 '등지게, 더그레, 답호'와 동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고려할 때 가죽으로 만든 상의로 소매가 없거나 짧은 형태의 의복으로 추측된다.

'적삼'은≪倭≫에는 '衫',≪同≫·≪蒙≫에는 '衫兒'의 우리말 풀이로, '솜밧기적삼'은≪譯≫에 '衫兒, 汗衫'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삼'은 '衫, 衫兒, 汗衫'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솜밧기적삼'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삼'은 ≪譯補≫·≪同≫·≪蒙≫·≪方≫에는

'雨衣', ≪譯≫과≪倭≫에는 '油衫'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어휘분류사전인≪物名攷≫[58]에는 '雨衣'가 '油衫'으로 언해되고 있다. '유삼'은 기름을 먹인 옷으로 '油衫'의 한자음의 표기이며, '雨衣'는 유삼의 용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雨衣'와 '油衫'은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바지'는 ≪同≫·≪蒙≫에는 '綿褲', ≪倭≫에는 '袴', ≪方≫에는 '褲子'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바지와 유사한 명칭인 '고의'는 ≪同≫·≪蒙≫에는 '單褲', ≪譯≫에는 '袴兒', ≪倭≫에는 '褌'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同≫·≪蒙≫에서 보면 '고의'는 '單褲', '바지'는 '綿褲'의 우리말 풀이로써 홑으로 만든 것과 솜을 둔 것의 차이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아동용한자학습서에서 보면 고의는 1700년대에는 바지와 함께 袴의 우리말 풀이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褌, 單褲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면서 속옷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 연구는 7종의 외국어 학습서에 기록된 동일한 한자 복식명칭의 언해 차이를 살피고, 동일한 한글 복식명칭을 중심으로 한자 어휘 및 복식의 형태를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먼저 서지적 고찰을 통해 역학서에 기록된 복식명칭을 비교 고찰한 결과해 보면, ≪譯≫에서는 쓰개, 신, 의복 등 복식명칭이 다른 외국어학습 보다 많았고 한자 동의어가 기록되어(갓모: 雨籠·油窩/ 망긴 : 網子·網兒)있었다. 또 ≪同≫과≪蒙≫, ≪譯≫과 ≪方≫은 대체로 복식명칭의 표제어와 그의 언해가 유사하였고, 특히≪同≫과≪蒙≫에는 현재 북한방언으로 언해된 명칭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동일한 한자 복식명칭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帽子', '斗蓬', '頭面', '襪(子)', '木屐(屐)', '暖襪子', '襖(子)', '小襖子', '裹衣', '圍領', '褂子', '齊肩褂', '衫兒', '單褲'가 언해에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이러한 언해의 차이는 동의어로 표기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중 '襪(子)', '木屐(屐)', '單褲', '小襖子', '褂子'는 한글표기만 다른 유사어였고, '帽子', '斗蓬', '頭面', '襖(子)', '圍領'은 하나의 어휘가 다른 어휘들을 포괄하여 동의어 관계에 있었으며, '裹衣'는 고유어와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동의어 관계에 있었다.

3. 동일한 한글 복식명칭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감토, 갓, 삿갓, 볼씨, 갓모, 너널, 갓동옷, 쏨밧기격삼, 누역, 털릭, 고의, 바지, 갓동옷, 핫옷, 동돌지(동돌찌), 유삼, 치마 등이 두개이상의 한자표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중 감토, 너널, 쏨밧기격삼, 누역, 털릭 등은 유사한 한자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갓, 동돌지(동돌찌) 등은 각 나라의 복식형태에 맞는 한자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4. 兀剌를 언해한 '둘오기', 暖襪子를 언해한 '너널'과 같이 문헌자료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명칭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帽를 언해한 '마흐래', 襖子를 언해한 '돌찌', 頓子와 皮袵를 언해한 둔즈와 둔즈 등 현재 북한 방언으로 남아 있는 명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마흐래, 쿠리매, 널쿠 등은 역학서에 표기된 각 나라의 발음을 통해 만주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는 복식명칭의 의미 해석과 몇 가지의 복식명칭에 대한 원류를 밝힐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식의 형태를 밝히는 데에 미흡했던 점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이후 본문에서는 ≪譯語類解≫=≪譯≫, ≪譯語類解補編≫=≪譯補≫, ≪同文類解≫=≪同≫, ≪蒙語類解≫=≪蒙≫, ≪蒙語類解補編≫=≪蒙語≫, ≪倭語類解≫=≪倭≫, ≪方言類釋≫=≪方≫과 같이 약칭을 사용한다.
2) 영인본 역어유해 (1974). 아세아문화사.
3) 영인본 동문유해 (1995). 홍문각.
4) 영인본 몽어유해 (1971).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왜어유해(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988). 태학사.
6) 영인본 방언유석 (1985). 홍문각.
7) '足衣'는≪設文≫에 '韈 足衣也'라 하여 반드시 버선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혜진·권영숙(1992), 안동대학

교박물관(2005)에서 보면 '신과 버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도 '발에 신는 물건'이라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8) 유희경 (1989).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429.

9)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襪用牛革長沒脛 名曰多路岐不着鞋屨'.

10) 杜鈺洲외 (2000). 中國衣經. 상해문화출판사, p. 202.

11) 이근술, 최기호 (2001). 토박이말쓰임사전(하). 동광출판사, p. 1150.
용복을 입고 말을 탈 때에 두 다리를 가리던 아랫도리.

12) 연규동 (1996). 앞의 글. pp. 125~127.

13) ( )안에 있는 표기는≪역≫에 기록된 한어음 표기이다.

14) ≪蒙補≫에는 齊肩褂의 肩위치에 短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 '齊肩褂=齊短褂'인 것으로 보인다.

15) 才物譜. 국립중앙도서관소장, p. 54.

16) 연규동 (1996). 근대국어 어휘집 연구 - 유해류 역학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갓'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18) 이기문 감수 (1990). 앞의 책, p. 1244.

19) 영인본 漢淸文鑑 (1998). 홍문각. 권11, 衣服 6a.

20) 손경자 역 (1995). 中國服飾 5000년(下). 경춘사, p. 422.

21) 이기문 (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p. 221.

22) 이근술, 최기호 (2001). 앞의 책, p. 405.
추울 때에 신는 커다란 솜버선.

23) 영인본 漢淸文鑑 (1998). 홍문각, 12a.

24) 이기문 (1991). **앞의 책**. 동아출판사, p. 219.

25) 속초문화원 http://www.sokcho-culture.com/research/research5-5-5(4).html.
청호동(속초시에 속하며 북한난민이 주로 사는 지역) 방언 조사자료, "돌찌르. 우이 입는거 돌찌라 그래. 이레 걸쳐 입는 거 돌찌르 입는다 그래." 최옥순(여, 68세, 전 주거지: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26) 특전사령부 (1972). 북한 방언 및 북괴 군사 술어. 특전사령부, p. 51.

27) 영인본 漢淸文鑑 (1998). 홍문각, 권11, 5a.

28) 이근술, 최기호 (2001). 토박이말쓰임사전. 동광출판사, p. 581.

29) 杜鈺洲외 (2000). 앞의 책. 상해문화출판사, p. 181.

30) 郭忠求 (2000). 六鎭方言의 現狀과 硏究. 한국학논집, 34, p. 355.
특히 이지역의 방언을 六鎭方言(륙진방언 또는 육읍방언)이라 하는데, 두만강 연안에 위치한 會寧·鐘城·穩城·慶源·慶興의 다섯 군에서 쓰이는 지역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31) 영인본 朴通事新釋諺解 (1985). 홍문각, 中59b.
"玄靑的裁做褂子○셕청 빗츤 등거러 물라 민들고".

32) 이희승 (2001). 앞의 책, p. 1034.

33) 이희승 (2001). 위의 책, p. 1028.
등만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홑옷. 조끼처럼 깃이 없고 주머니를 달기도 하며, 소매를 짧게 하거나 아주 없게 만듦.

34) (飜譯)老乞大. 규장각, 下, 50a~b.

35) 영인본 老乞大諺解. 아세아문화사, 下, 45a~b.

36) ≪(飜譯)朴通事≫와 ≪朴通事諺解≫에서는 搭胡가 搭護, 搭忽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37) 최남선 (1948). 조선상식, 풍속편.

38) 영인본≪漢淸文鑑≫ (1998). 홍문각, 권11, 6a.

39) 이기문감수 (1990). 앞의 책. 동아출판사, p. 503.

40) 영인본≪漢淸文鑑≫ (1998). 홍문각, 1a.

41) 張混 輯. 蒙喩篇. 국립중앙도서관소장.

42) 四禮便覽. 卷之一. 冠禮, 陳冠服.
帽子(丘氏) 曰今世帽子有貳等 所謂大帽者 乃是笠子以蔽雨日 所謂小帽者 或紗或羅或緞爲之 小帽卽今(圓頭).

43) 周錫保 (1983).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又戈 居刂出版社, p. 384.

44) 國漢會語 (1986). 태학사, p. 124.

45) 영인본 事類博解 (1994). 민창문화사, p. 124.

46) 규장각본 松南雜識 (1987). 권1. 동서문화원, p. 2032.
玉篇曰音感註復豆亦曰氈巾俗文書作甘套卽箕子東來時烏頭色巾是也卽烏匝也.

47) 이기문 감수 (1990). 앞의 책, p. 72.

48) 物名攷, p. 291, 衣服類.

49) 이희승 (2001). **앞의 책**, p. 68.
갓 위에 덮어쓰는 우구(雨具)로 유지(油紙)로 만들어 접으면 부채처럼 되고 펴면 고깔과 비슷하다.

50) 物名攷. 국립중앙도서관소장, p. 42.

51) 위의 책, p. 290, 衣服類.

52) 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p. 173.

53) 영인본 漢淸文鑑 (1998). 홍문각, 卷11, 12a.

54) 廣才物譜. 卷之二. 홍문각, 衣服部, p. 175.

55) 譯語類解. 아세아문화사, p. 91.

56) 심재기(2000). 국어 어휘론 신강. 태학사, p. 186.
후기중세국어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이 접하게 된 白話系 한자어로 頓子의 사역음이다.

57) 특전사령부 (1972). 위의 책, p. 50.
'두루마기'를 의미하는 황경남도 안악·재령, 황경북도 서흥·수안의 방언.

58) 物名攷, p. 291, 衣服類.